

# 광주시 충장로 권역 살리기 힘 모은다

## 사업 관계 부서·기관간

## 도시재생 정책 협업 본격화

## 중복투자방지 등 재정효율화

광주시가 침체한 충장로 권역을 살리기 위해 정책 협업에 나서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충장로 권역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신활력총괄관·문화도시정책관·관광도시·스마트도시·광주 동구 등 사업 관계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충장동, 서남동, 동명동 등 구도심 지역인 문화전당 일원은 역사성과 스토리를 가진 광주의 대표 유·무형 자산으로 호남 대표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2005년 전남도청 이전, 신도심개발(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등의 여파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점이 광주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충장로 권역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충장로 권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유·무형 연계 체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간 협업방안을 구

체화하는 등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광주시는 이번 충장로권 협업회의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지역별 협업회의를 정례화하고, 동일 권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복투자방지 등 재정 효율화와 시너지 극대화로 재정 운영 생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가 충장로 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 또는 완료한 100억원 이상 사업은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재생(충장동 일원·사업비 200억원),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조성사업(서남동 일원·300억원),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ACC일원·19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ACC일원·212억원),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ACC일원·245억원), 지역거점 스마트 시티조성사업(충장·서남동 일원·283억원), 충장상권르네상스(충장동 일원·100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시는 또 주요 사업으로 광주폴리 V차 프로젝트(ACC일원·50억원), 미디어테마콘텐츠체험관광 플랫폼 조성(금남지하상가·36억원), 충장축제 및 버스킹월드컵(금남로 일원·32억원) 등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2014년 선정돼 2020년 완료한 충장동 일원 문화도심재생 사업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미로센터, 충장22 등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16만명이 방문하는

등 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20년 선정된 서남동 일원 인쇄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인쇄 아카이브, 아시아음식플랫폼, 공영주차장 등 거점시설과 주민 커뮤니티공간, 도로 개선 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선정된 동명동 일원 재생사업은 밀집된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해 동북어울림센터, 동명공간 등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160호를 정비하는 등 옛 읍성터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산수동 일원 꼬두메 향기가득 행복마을 만들기, 계림동 일원 경양마을 신바람 나기 등 다양한 도심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지역거점 스마트 시티조성, 충장상권르네상스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유기적인 연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정책·사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실증 등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대상권역별 정책·사업 간 실질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리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스템도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월산근린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 환경부 공모 4억3000만원 예산

## 광주시 생태계 복원 사업 완료

광주시는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추진한 월산근린공원의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계 복원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를 보전·복원 사업인데, 주거지역과 밀접한 월산근린공원은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광주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신청해 국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

며, 지난해 9월부터 월산근린공원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완료했다.

시는 낙엽관목 13종 5313그루, 상록관목 5종 1612주 등을 식재했으며, 곤충호텔과 생태 탐방로, 원두막 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생태체험 및 휴식 공간 등도 마련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 훼손·방치된 공간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이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총 9개 지역 24만8000㎡에 국비 85억원을 투입해 도심 공원의 생태환경을 정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검진에서 완치까지...결핵 예방관리 총력

## 광주시 협력 병원 운영 등 추진

광주시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다각적인 결핵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결핵은 법정감염병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감염되며,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이 2019년 48.7명, 2020년 41.2명, 2021년 37.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결핵 고위험군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 입원명령자 지원,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 사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 ▲고등학교

교 2·3학년 결핵검진 ▲결핵 취약계층(노인·노숙인 등)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보건소 결핵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자가 발생하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관리와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결핵 감염 예방에 집중하고, 전수 사례조사를 통한 맞춤형 환자관리와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운영,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등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자치구와 함께 일반의료기관 치료환자(전체 결핵환자의 20% 해당)에 대한 관리지원사업, 영유아 등 돌봄시설의 1년 미만 계약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사업도 진행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면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결핵 검진을 받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1190kg 노인복지관 기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김준하 신임 단장 특별한 취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발

우리나라 AI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이 특별한 기부를 실천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김준하 신임 단장이 취임 축하 인사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쌀 1190kg을 광주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일 제2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으로 취임한 김준하 단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출발을 위해 취임식에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고, '사랑의 나눔쌀'을 기증받았다.

기부된 쌀은 광주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선별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영옥 광주 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은 "기부 받은 사랑의 쌀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지난 23일 광주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김영옥 관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로 받은 '사랑의 나눔 쌀' 1190kg을 전달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준하 단장은 "축하의 뜻을 전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취임 축하 인사로 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확산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구조센터 구조 야생동물 사진전

## 29~31일...120점 전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전시공간에서 '구조 야생동물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도심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속 다양한 야생동물을 소개하고 보호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130종 2061마리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으며, 이중 681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다.

구조한 동물 중에는 수달, 하늘다람쥐, 팔색조, 수리부엉이, 삿 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20종 269마리 포함돼 있어 광주권내 생물 다양성이 전국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풍부함을 확인시켜 줬다.

사진전은 '광주 야생동물 구조 作展(작전)'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에서 구조·치료, 자연 방사한 야생동물 105종 12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22점, 일반 구조 동물 80점, 특히 구조사연이 있는 하늘다람쥐 등 자연방사 분야 18점을 3개 분야로 나눠 전시한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센터는 4년간의 활동 성과를 담은 홍보책자 '날갯짓'도 현장에서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